

효성, 스틸코드 6만5000톤 합작

Sumitomo Chemical과 합작투자 ... 중국 2만5000톤에 타이 4만톤

효성이 일본과 합작으로 타이어보강재 사업 확대에 나선다.

효성은 특수강선·케이블 제조기업인 일본의 Sumitomo Chemical과 손잡고 중국과 타이에 타이어보강재인 스틸코드 공장을 설립한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

효성과 Sumitomo Chemical은 7대3 합작으로 중국 Nanjing에 스틸코드 2만5000톤 공장을 건설하고 타이 Rayong에는 3대7합작으로 4만톤 공장을 2012년까지 건설기로 했다. 신규공장은 공정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을 고려해 건설된다.

효성은 10여년간 Sumitomo Chemical과 기술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타이어보강재 합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섬유 타이어코드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으며 Goodyear, Michelin, Bridgestone 등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저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한국 언양, 중국 Qingdao, 베트남 등에서 스틸코드 공장을 가동해왔으며 Sumitomo Chemical과의 합작을 통해 섬유 타이어코드 뿐만 아니라 스틸코드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6>